

이해찬(전 국무총리) 1차 구술

1. 구술자: 이해찬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11월 29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광장
6. 구술분량: 05분 3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노동위 활동을 비롯한 조선의원 시절의 면모

구술자 :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막 장기파업¹⁾을 했습니다, 당시에. 백팔십(180)일인가 이렇게 장기파업을 했는데 경찰하고 계속 대치하면서 파업이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울산 현대중공업을 갔지요. 가가지고 인제 그 농성지도부들이 같이 그 뭐랄까? 거처가 ‘오좌불’이라는 옛날 숙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동네 이름이 오좌불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허술한 동네데 그 안에 현대중공업 지도부들이 말하자면 바리케이트(barricade)를 치고 거기다 대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돌이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막 최루탄을 엄청나게 쏘가지고 눈이 안보일 정도로 막, 완전히 안개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그걸 헤치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지도부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게 장기파업으로 갈 때 생기는 문제점 이런 거 다 대화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농성을, ‘일단 싸우면서, 농성을 풀면서 대중조직을 유지하자. 잘못하다 극단화되면 이 노조대중조직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일부 지도부가 구속이 되더라도 대중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대화를 허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막, 그 연기 속을, 연기 같은 최루탄 속을 뚫고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서로 신뢰 있는 대화가 잘 되고 그랬던 적이 지금 기억이 나요.

면담자 : 그 시절이 실제로 팔십칠(87)년 유(6)월 항쟁하고 이른바 ‘노동자 대투

1) 1988년 12월 12일부터 이듬해 4월 중순까지 128일 동안 벌어진 파업. 이 파업의 후속으로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1990년 풀리앗 크레인 점거 농성이 이어진다.

쟁’ 이래가지고 한참 노동계 쪽이

구술자 : 막 올라올 때죠.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노조 결성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복수노조가 금지돼있어서 그 결성 자체가 봉쇄가 되고. 한편으론 쟁의를 하더라도 타협이 잘 안 돼가지고, 파업이 막 장기화되고 이랬던 시절이었죠. 노동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전면적으로 부각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일을, 말하자면 생존권이죠.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그 일을 할 적엔 정말 정신없이 전국을 뛰어다니고 그걸 했어요.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하고 신뢰가 생기고 같이 공감(하게 됐죠). 우리 방²⁾하고 그 방하고는 그저 누가 누구 비선지(비서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어울려 지내고. 질의서도 그쪽이 다 질의를 못하면은 내가 맡아서 질의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게 다 안 되면은 그 질의서를 또 노 대통령 방으로 보내서 또 거기서 질의하고. 서로 간에 당은 다른데 똑같은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죠.

면담자 : 그때 좀 기억나는 면모가 있으세요, 대통령님이 노동현장이나 상임위 활동에서 같이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구술자 : 그때, 저하고 좀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노동 문제도 현장도 중요하지만 제도화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라는, 그런데 좀 더 역점을 두고 있고. 노 대통령은 현장 지원하는 거에 더 역점을 두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현장 다니는 건 인제 큰 사건은 저도 같이 현장에 다니고 작은 사건은 저는 현장을 덜 다니고 제도화시키는 걸 주로 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노동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걸 보면은 법률해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국회에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³⁾ 근데 그 변호사들이 완전히 법전을 외워서 축자적(逐字的)으로 해석해서 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른바 그 법조계에서는 ‘리갈 마인드’ (legal mind)라고 그러는데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그런 리갈 마인드가 아주 높아서 법전을 안 갖고도 문제를 다 포착해내는, 법률적인 문제를.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 독학을 하셨는데, 독학을 하셨는데도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법리 논쟁을 할 적에 보면은 공무원들이라든가 다른 변호사들이 경쟁이 안돼요, 경쟁이. 그럴 정도로 뛰어난 그런 리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걸 보

2) 의원실을 말함.

3)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말함.

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현장에 다니면서도 대중강연을, 웅변을 아주 잘해요. 아주 선동적으로 아주 잘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수습을 해주러갔는데 오히려 쟁의를 선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웃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자기의 온몸을 던져요. 할 때 보면은. 한번은 상임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도 사용자측들이 빨갱이라고 몰고 이제 그러니까 막 서류를 확 집어던지면서 “그래 내 빨갱이다, 어쩔래” 허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일화는 많지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52. 충남 청양 출생

1971.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5.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1974. - 1975.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

1979. 돌베개출판사 설립(대표)

1980. - 1982.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85.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대변인, 정책실차장, 총무국장

1987.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의원

1988.05 제13대 국회의원(평민당, 서울 관악을)

1988. 국회 광주민주화운동특별위원회 간사

1988. 평민당 원내부총무

1991. 신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92.05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관악을)

1993. - 1994.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

1995.07 - 1995.12 서울시 정무부시장

1996. 국민회의 총선거획단 단장

1996.05 제15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관악을)

1996.05 - 1997.05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1997.07 - 1997.12 새정치국민회의 대선기획본부 부분부장

1997.12 - 1998.02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 간사
 1998.03 - 1999.05 제38대 교육부 장관
 2000.04 - 2000.12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관악을)
 2000.12 - 2001.03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1.03 - 2001.09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2.05 - 2002.06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상임 선대본부장
 새천년민주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02.09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 본부장
 2003.10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기획단장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관악을)
 2004.06 - 2006.03 제36대 국무총리
 2006.10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
 2007.09 - 2007.10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2009. 시민주권 상임대표
 2011.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2012.05 -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
 2012.06 - 민주통합당 당대표(2012년 현재)

제13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위에서 활약했다. 3당 합당 이후 신민당과 통합한 민주당에 함께 있었으나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으로 다시 당적이 갈렸다. 노 대통령이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로 입당한 이후에는 줄곧 같은 당에서 활동했다. 노 대통령이 1998년 종로 재보선을 통해 10년 만에 재선의원이 되고 교육위를 맡을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상임위에서 만나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 중앙선대위 기획본부장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다.